

## 투자전략/경제

- 전략 인사이트: When EM Disco..... 노동길

## 산업/기업분석

- 2차전지 산업 (Positive유지): 테슬라가 가장 많이 찾는 한국 2차전지..... 고정우
- 휴대폰/IT부품산업 (Positive유지): Xiaomi 실적 시사점 - 부품 공급 부족..... 이규하
- 대한유화 (Buy유지/TP:300,000원상향): 따뜻한 연말 맞이하기..... 황유식
- 엔씨소프트 (Buy유지/TP:1,220,000원유지): 엔씨다이노스의 우승과 집행김, 그리고 엔씨소프트의 기업가치 상승..... 안재민

## 해외주식

- ASIA CORE EQUITY: NH에서 보는 ASIA CORE EQUITY..... 김형래/박주선/조철균

## 크레딧전략

- NH Credit Issue: 2021년 KP(한국계 외화채권) 전망: 강세 여력 제한적, 코코본드 투자 권고..... 김준용

NH Morning Briefing은 당사 Research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www.nhqv.com)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동 자료상 투자의견이 제시된 기업 중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NH투자증권은 해당기업의 발행주식 등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무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투자전략/경제

## 전략 인사이트

노동길 (02-2229-6760)

## When EM Disco

글로벌 투자자들이 현 시점에서 가장 선호하는 자산군은 신흥국 주식입니다. 신흥국을 향한 외국인 자금 유입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와 이에 따른 투자전략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 이 시각, 글로벌 펀드매니저가 가장 선호하는 자산은 EM 주식
  - 11월 BofA(뱅크오브아메리카) 글로벌 펀드매니저 서베이에서 나타난 뚜렷한 변화는 낙관론 확대다. 글로벌 경제가 향후 12개월 동안 개선세를 보이라 예상한 응답자 비율은 91%로 2009년 이후 최고다. 미국 대선 결과와 코로나 19 백신 개발 소식을 접한 펀드매니저들은 EM(신흥국) 주식 비중을 전월 대비 늘렸다고 답했다. 글로벌 펀드매니저가 현 시점에서 가장 선호하는 자산군은 명실상부 신흥국 주식이다.
- 외국인 자금 유입 전망
  - 결과적으로 외국인 자금 유입 기저에는 경기 개선 기대감이 가장 크게 자리하고 있다. 과거 외국인 KOSPI 순매수 패턴을 고려하면 신흥국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에서 외국인 자금 20조원 이상 유입이 관찰된다.
  - 규모보다 더 중요한 점은 외국인 순매수에 변곡점이 나타날 시기다. 신흥국 선호에 잡음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는 2021년 1분기 말, 2분기 초로 예상된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실제 무역 관련 정책을 확인할 수 있고, 전년 대비 경제 지표 개선에 따른 시중금리 상승 가능성이 맞물린 시기다. 결론적으로 외국인 KOSPI 순매수 기대가 가장 큰 시기는 현재 시점부터 2021년 1분기 말까지다.
- 투자아이디어
  - 외국인이 바스켓으로 국내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상황에서는 대형주 수익률이 중소형주에 앞선다. 중소형주 비중 축소 및 대형주 비중 확대 전략이 2021년 1분기 말까지 유효한 투자전략이다. KOSPI200 섹터 비중보다 외국인 순매수 규모가 큰 반도체, 2차전지에 대한 비중도 늘릴 필요가 있다. 한국 주식시장 높은 이익모멘텀이 외국인 선호 기저인 점을 고려했을 때 자동차 업종도 우선적으로 주목할 만한 업종군이다.

산업/기업분석

2차전지 산업 (Positive유지)

Update

고정우 (02-768-7462)

테슬라가 가장 많이 찾는 한국 2차전지

테슬라의 2차전지 수요는 전기차 생산거점 확대, 출시 모델 확대 등으로 지속 증가할 전망. 최근 테슬라 2차전지 공급망 내 LG화학의 영향력 강화 중. 향후 테슬라 내 LG화학 점유율은 독일 베를린 제품 공급까지 가정하면 39%('21년 기준)에 이를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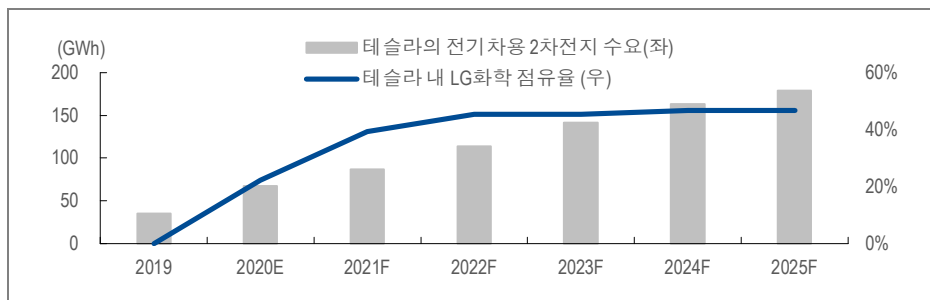
• 테슬라의 2차전지 수요는 지속 증가할 전망

- 테슬라의 전기차용 2차전지 수요(전기차 대당 2차전지 탑재량 80kWh 가정)는 '20년 67GWh → '21년 87GWh → '22년 114GWh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동사는 전기차 생산거점 확대, 출시 모델 확대 등을 진행하고 있어 2차전지 사용량 또한 지속 증가할 전망
- 특히 테슬라의 전기차 생산공장 확대 전략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테슬라는 주요 대륙별 내 특정 국가에 생산공장을 확대 중. 아시아의 경우 중국 상해 공장 가동을 '20년 초부터 본격화했고, 생산능력을 장기적으로 50만대/년(3분기 기준 25만대/년)으로 확대할 계획. 그리고 유럽의 경우 독일 베를린 공장 가동을 '21년 하반기 시작할 예정이고, 생산능력을 장기적으로 50만대/년(가동 초기 15만대/년)으로 확대할 계획. 추가로 Cybertruck 등의 생산을 위해 미국 오스틴에 설비 투자를 진행 중. 미국 오스틴 생산공장 가동은 '21년 하반기 시작될 것으로 예상. 동사는 Cybertruck 사전 주문 시 '21년 후반 생산 가능하다고 언급

• 테슬라 내 LG화학 점유율 확대 예상

- 테슬라는 전기차용 2차전지를 LG화학, 파나소닉, CATL 등으로부터 공급받는데, 최근 LG화학 2차전지 사용을 확대하고 있음. 언론에 따르면 LG화학은 중국 상해에서 생산되는 모델3에 이어 모델Y에 사용되는 2차전지까지 공급할 전망. 이는 LG화학이 원형전지를 양산할 수 있으며, 중국(남경) 내 생산공장을 구축했고, 주요 2차전지 원료/소재를 내재화했으며, 주요 메탈(리튬, 니켈 등)을 재사용해 매력적인 공급처로 부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 향후 테슬라 내 LG화학 점유율은 독일 베를린 제품 공급까지 가정한다면 39%('21년 기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

테슬라 전기차 내 LG화학의 점유율 전망



주: 테슬라 전기차 생산능력 기준; 자료: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전망

**Xiaomi 실적 시사점 - 부품 공급 부족**

동사는 스마트폰 판매 확대로 역대 최대 실적 달성. 실적 발표의 주요 시사점은 최근 양호한 스마트폰 수요 대비 부품 조달이 어렵다는 것. 국내 범용성 IT 부품 업체들의 수혜 전망

- 스마트폰 판매 확대로 역대 최대 매출액 및 순이익 달성
  - 동사는 역대 최대 분기 매출액 및 순이익을 달성하며 시장 컨센서스 상회하는 실적 발표. 스마트폰 판매가 양호했고 (+64.4% q-q) 해외 가전제품 판매 호조세가 실적 견인. 주요 시사점은 수요는 건조함에도 부품 수급이 어렵다는 것. MLCC를 포함한 IT 범용 부품 관련 업체 수혜 전망
  - 실적 컨퍼런스 주요 내용은 1) 최근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동사는 4분기에도 양호한 판매를 기록하고 있으며, 2) 자국 시장과 유럽을 포함한 해외시장에서 향후 점유율 확대가 기대되고, 3)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감소보다는 최근 부품 확보가 어렵다는 점
  - 당사는 Xiaomi가 가격 및 제품 경쟁력을 토대로 삼성전자와 함께 Huawei의 시장 점유율을 가장 많이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며 2021년에도 스마트폰 판매 증가세(+9% y-y) 전망
- 수요는 의외로 견조, 문제는 범용성 IT 부품 조달
  - 이번 Xiaomi 실적 발표에서의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수요는 견조한 가운데 최근 부품 수급이 어렵다고 동사가 언급한 것
  - 이는 최근 부진한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과는 상반되는 내용으로 Huawei의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해 각 업체들이 부품 확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일부 부품은 생산에 영향을 줄 정도로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 Apple도 지난 실적 발표 때 부품 수급의 어려움을 토로했으며 관련된 부품은 PMIC(전력반도체), 칩셋항기 등 범용성 IT 부품일 것으로 예상. 이와 관련해 국내 범용성 IT 부품 관련 업체인 삼성전기, 삼화콘덴서, PI첨단소재, 아비코전자 등이 수혜 가능할 것으로 기대

**Xiaomi 3Q20 실적 Review**

(단위: 십억위안, %)

	19/9	19/12	20/3	20/6	20/9P			20/12E	
					발표치	y-y	q-q		컨센서스
매출액	53.7	56.5	49.7	53.5	72.2	34.5	34.8	70.0	75.4
영업이익	3.1	2.7	2.3	5.4	6.7	115.1	23.7	3.7	3.5
영업이익률	5.8	4.8	4.7	10.1	9.3	-	-	5.2	4.7
세전이익	3.3	2.7	2.5	4.9	5.5	65.4	12.0	3.6	3.0
(지배)순이익	2.5	2.4	2.2	4.5	4.9	93.1	8.3	3.2	3.2

자료: Xiaomi, Bloomber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 당사는 '삼성전기'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의 발행회사 및 LP(유동성공급자)임을 알려드립니다.

대한유화 (006650.KS/Buy유지/TP:300,000원상향/CP:240,000원)

목표주가 상향

황유식 (02-768-7391)

따뜻한 연말 맞이하기

코로나19 특수에 이어 연말 온라인 쇼핑 특수로 석유화학 제품 수요 강세. 다수 NCC 설비 가동 중단으로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 이에 모든 설비가 정상적으로 가동 중인 동사의 수혜 극대화 전망

• 연말 수요 강세 속 공급 부족 현상 심화

- 코로나19 특수에 이어 연말 온라인 쇼핑 특수로 석유화학 제품 수요 강세 및 스프레드 확대. 이에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를 상향 조정해 목표주가를 24만원에서 30만원으로 25% 상향하며, 투자의견 Buy 유지
- 포장재와 위생재, 가전, 실내용품 등 코로나19 특수가 지속되는 가운데 연말 온라인 쇼핑 특수가 더해질 전망. 비대면 주문량 증가에 따른 PE와 PP, PS, ABS 등 다수 석유화학 제품 수요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전까지 유지될 전망. 공급 측면에서는 롯데케미칼 대산공장(NCC 110만톤) 및 LG화학 여수공장(NCC 120만톤) 가동 중단 상태. 국내 에틸렌 생산량의 23%를 담당하는 이들 공장은 12월 말부터 단계적 가동 예정. 이에 적어도 12월까지의 공급 부족 현상 심화될 것으로 판단

• 2차전지 소재 설비 증설로 친환경 사업 강화

- 올해 9월 2022년 말 완공 목표로 NCC 10만톤 증설 결정. 이는 ① 분리막용 HDPE 수요 증가에 따른 원재료 확보 및 ② SK종합화학의 울산공장 가동 중단(NCC 20만톤, 2020년 말 예정)에 따른 울산 내 에틸렌 공급 축소를 염두에 둔 행보. 2차전지 분리막용 HDPE 시장 점유율 글로벌 1위 기업으로 EV 성장에 따른 실적 증대 가능성이 높음. 저탄소 경제 관련 제품 매출액 비중 늘리며 친환경 기업으로서의 인지도 제고 중
- 4분기 영업이익 841억원(+610.7 y-y, +33.2 q-q) 추정. 월 평균 제품 스프레드는 지난 10월 연중 최대치를 기록했음. 11월 현재 BD와 에틸렌, 프로필렌 등 주요 제품 스프레드가 추가적으로 확대됨. 계절적 출하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직전분기 대비 영업이익은 증가할 것으로 추정

대한유화 4분기 실적 Preview (K-IFRS 연결)

(단위: 십억원, %)

	4Q19	1Q20	2Q20	3Q20	4Q20E					1Q21F
					예상치	y-y	q-q	기존추정	컨센서스	
매출액	566.3	496.0	439.5	434.7	453.2	-20.0	4.3	457.7	479.4	441.0
영업이익	11.8	-45.7	72.4	63.1	84.1	611	33.2	60.6	67.3	80.8
영업이익률	2.1	-9.2	16.5	14.5	18.6			13.2	14.0	18.3
세전이익	12.2	-40.8	73.1	71.4	92.2	658	29.1	65.3	70.7	84.6
(지배)순이익	10.7	-30.2	54.1	54.2	70.1	556	29.2	49.6	64.6	64.1

주: IFRS 연결기준; 자료: FnGuide, NH 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전망

엔씨소프트 (036570.KS/Buy유지/TP:1,220,000원유지/CP:805,000원)

Update

안재민 (02-768-7647)

**엔씨다이노스의 우승과 집행검, 그리고 엔씨소프트의 기업가치 상승**

엔씨소프트의 프로야구팀인 엔씨다이노스가 창단 9년 만에 우승을 차지. 우승 세리머니로 집행검을 들어올리며 엔씨소프트의 게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집행검의 존재를 각인시킴. 스포츠단 운영이 회사의 이미지 개선과 인지도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음

- 엔씨다이노스 우승으로 드러난 엔씨소프트의 중장기 투자전략

- 엔씨소프트에 대한 투자자의견 Buy와 목표주가 1,220,000원 유지. 엔씨소프트의 프로야구팀인 엔씨다이노스가 창단 9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면서 세리머니로 들어올린 집행검으로 인하여 엔씨소프트의 브랜드 인지도 상승과 투자에 대한 철학이 부각되었고, 기업가치에도 긍정적 영향 기대
- 김택진 사장은 야구단에 대해 중장기 투자를 진행하며 1위를 달성하였고, 게임 사업도 지난 수년간 넥슨과의 경영권 분쟁, 모바일 게임 시장으로의 변화 등 다양한 외부 변수에도 불구하고 국내 1위 게임 업체로 성장
- 엔씨소프트는 경쟁업체에 비해 게임 개발 기간이 길고, 신작 출시 간격도 상당히 긴 편인데, 이를 기다려줄 수 있는 엔씨소프트의 중장기 투자 철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 이러한 전략으로 인하여 지난 20년간 회사는 꾸준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국내 게임 회사 중 근속연수가 5.5년(게임업체 평균 3.9년)으로 긴 편임. 지난 수년간 모바일 게임에 대한 투자와 새로운 IP(지적재산권) 개발, 글로벌 게임 개발, 플랫폼 확장 등의 노력이 2021년부터 본격적인 결실로 나타날 전망. 또한, ESG 관점에서도 경영진의 중장기 투자 철학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중장기 투자의 결실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2021년

- 엔씨소프트는 2021년 다수의 신작을 출시할 예정. 1분기 중 ‘블레이드&소울2’와 ‘리니지2M’의 대만 출시, 하반기 중 ‘아이온2’, ‘프로젝트TL’, ‘리니지2M’의 일본 및 글로벌 출시가 예정되어 있음. 이외에도 지난 수년간 준비했던 프로젝트들이 추가로 공개되며 성과를 본격적으로 보여주는 시기가 될 것

**엔씨다이노스의 우승으로 집행검이 부각되었고, 이로 인해 엔씨소프트의 이미지도 향상됨**

자료: 언론보도 재인용,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 해외주식

## ASIA CORE EQUITY

김형래(02-768-7486), 박주선(02-768-7447), 조철균(02-2229-6721)

## NH에서 보는 ASIA CORE EQUITY

## • 추천종목1: 베트남 빈 호아(VHC.VN)

- 빈 호아는 민물메기 수출 및 콜라겐&젤라틴(C&G) 생산기업. 현재 동사의 주요 수출 대상국가는 미국, EU, 중국 등. 특히, 동사의 민물메기의 대미 수출이 베트남 민물메기 전체 수출의 60%를 차지
- 투자포인트: 1) 베트남의 다자 간 FTA 체결을 통한 민물메기 수출 증가 전망, 2) 민물메기 공급 부족에 따른 ASP 상승 기대, 3) RCEP 체결에 따른 콜라겐&젤라틴(C&G)의 아시아향 대외 수요 증가

## • 지금 중국은...

- 1) RCEP 체결에 이어 CPTPP 가입도 검토  
지난 11월 20일 시진핑 국가주석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중국은 RCEP 체결을 환영한다며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도 고려하겠다고 밝힘

## • 지금 일본은...

- 1) '추가지수 29년 만의 최고치 경신' 의 착시효과  
NIKKEI225의 29년 만의 최고치 경신. 산출 방식 측면에서 KOSPI에 해당하는 TOPIX 지수는 이제서야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근접. NIKKEI225의 최근 강세는 액면가로 지수의 구성 비중을 산출하는 방식 때문
- 2)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내수 진작 정책 일시 중단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1월 21일 2,594명을 기록하는 등 연일 2천명대 이상의 확진자 발생. 스가 내각은 코로나19 확진자 수 급증에 따라 내수 진작 정책인 'Go To 시리즈' 캠페인의 일시 중단을 발표. 정부는 여행자들에게 취소 수수료 보상, 사업자에게는 여행대금의 35% 지급을 결정

## • 지금 아세안은...

- 1) 베트남: RCEP의 대표 수혜국  
RCEP 체결을 통해 참여국들은 일반 무역, 전자상거래, 경제기술, 정부 조달 등과 관련된 협력을 강화할 것. 베트남 경제는 올해 1월 발효된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통해 1.1%, 8월 발효된 EU-Vietnam FTA를 통해 2.4%, RCEP 체결을 통해 0.4%의 성장이 기대
- 2) 인도: 코로나19 백신 출시 기대감 vs 냉장 인프라 우려  
인도네시아는 2021년 말까지 1억 700만명에 대한 백신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음. 다만, 최근 냉장 인프라가 미흡하기 때문에 백신을 확보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배급/접종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
- 3) 인도: 2.65조루피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ABA 3.0) 발표  
지난 11일 인도 정부는 2.65조루피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 락다운 단행 이후 누적 기준 약 30조루피(GDP의 15%)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단행. 동 경기부양책에는 일자리 창출, 도심지역 부동산 건설 관련 지원, 락다운에 영향을 받은 26개 업종에 대한 지원 등이 포함

## 크레딧전략

## NH Credit Issue

김준용 (02-2229-6671)

## 2021년 KP(한국계 외화채권) 전망: 강세 여력 제한적, 코코본드 투자 권고

2020년 투자 성과는 6.3%로 우수. 발행 부담이 적으며 디폴트 및 미-중 갈등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점이 강세 요인. 기업 펀더멘털 개선될 전망이나 스프레드 축소 여력 높지 않은 점 부담. 금리 매력 높은 코코본드 매수 권고

- 2020년 동향: KP(한국계 외화채권) 강세, 타 EM 크레딧 아웃퍼폼

- 2020년 KP 강세. 올해 KP 투자 성과는 6.3%로(환율 효과 제외) 신흥국 크레딧 5.3%, 중국 크레딧 5.8% 대비 우수. KP 금리에 가산하는 크레딧 스프레드는 연초 수준까지 축소. 글로벌 크레딧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발행량 부담이 적었으며 디폴트 및 미-중 갈등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점이 추가 강세 요인
- 2020년 KP 발행량 감소. 올해 발행량은 11월까지 330억달러로 작년 동기간 360억달러 하회. 글로벌 크레딧 투자심리 개선에도 국내 기업의 외화 조달 수요 감소. 환헤지 프리미엄이 (+)로 전환되면서 국내 기관의 KP 투자 심리 개선. 다만 국내 회사채 대비 선제적 강세를 보이면서 상대 금리 매력은 축소

- 2021년 전망: 우호적 수급 & 펀더멘털 개선에도 밸류에이션 부담 존재

- KP 발행시장은 발행자 우위 시장 형성.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현금을 확보한 가운데 금리 상승 우려와 원화 약세 부담에 발행량 확대 가능성 제한적. 환헤지 비용 개선에 국내 KP 투자 수요 확대되면서 우호적 수급환경 조성될 전망
- 기업 펀더멘털 개선될 전망. 실물경기 반등 및 제조업 재고 재축적에 내년 기업 이익 증가할 것. 신용등급 방향성도 우호적. 글로벌 신평사는 자동차 및증권사에 대한 신용등급 하향 검토 철회
- 밸류에이션 부담 존재. 공기업에 이어 일반기업 KP까지 하반기 강세를 보이면서 KP 크레딧 스프레드는 연중 최저점 수준까지 축소. 선제적 강세를 보이면서 같은 펀더멘털을 공유하는 국내 회사채 대비 금리 메리트도 높지 않음

- 투자전략: 투자등급 약세 전망, 하이일드인 코코본드에 주목할 때

- 2021년 KP의 추가 강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낮아진 크레딧 스프레드 수준하에 기저 금리인 미 국채금리의 상승이 부담으로 작용. 미 금리의 상승폭이 스프레드 축소폭을 상회할 수 있어 투자 성과는 높지 않을 전망
- 대표적 하이일드 KP인 코코본드 매수 권고. 2021년 글로벌 크레딧은 하이일드의 상대적 강세 전망. 콜옵션 미행사에 따른 평판 훼손 리스크와 일반기업 코코본드의 스태업 조항 및 대한항공의 영구채 상환 결정 감안 시 KP 코코본드의 조기상환 가능성 높음. 일반 KP 대비 스프레드 축소 여력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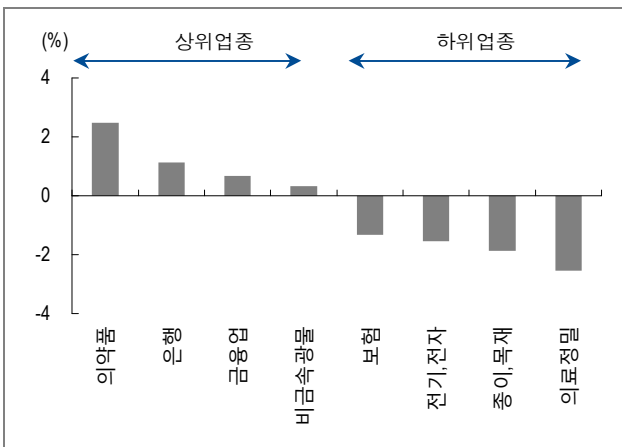
Domestic Market

		Index					Performance/Spread			
Trading Summary		25-Nov	24-Nov	23-Nov	20-Nov	19-Nov	1Day	1Week	1Month	1Year
거	주가지수(P,%)	2,601.54	2,617.76	2,602.59	2,553.50	2,547.42	-0.62	2.20	10.99	22.64
래	거래량(백만주)	1,410	1,365	1,649	1,130	976	46	196	390	572
소	거래대금(십억원)	21,796	16,887	15,764	12,266	12,515	4,909	7,132	7,764	10,962
코	주가지수(P,%)	865.12	872.10	873.29	870.18	859.94	-0.80	1.57	11.20	32.77
스	거래량(백만주)	2,494	3,185	2,119	2,149	2,249	-691	141	509	984
탁	거래대금(십억원)	18,099	14,902	12,854	13,487	14,795	3,197	3,708	6,632	8,414
<b>투자자별순매수(순매도)</b>										
거	외국인(십억원)	-37	726	983	104	106	-37	1,883	5,659	-20,775
래	국내기관(십억원)	-400	-694	-60	-226	-302	-400	-1,682	-2,733	-20,074
소	개인(십억원)	506	-25	-873	122	202	506	-68	-2,800	37,825
코	외국인(십억원)	-84	180	-42	140	11	-84	205	468	-1,282
스	국내기관(십억원)	-273	-76	-67	91	-60	-273	-385	-666	-9,424
탁	개인(십억원)	381	-57	133	-173	80	381	364	935	15,535

주: 투자자별순매수의 Performance/Spread는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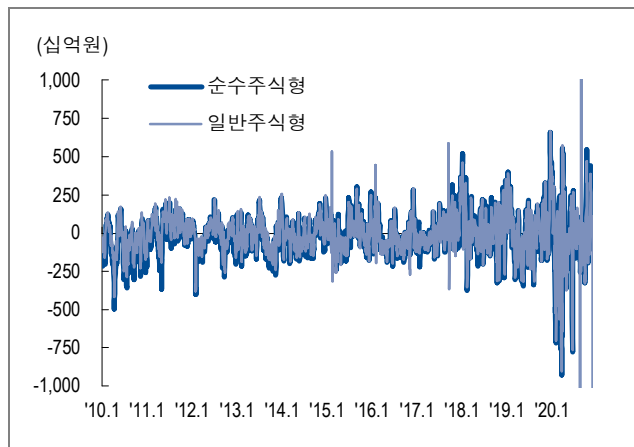
Market Indicators										
	3년만기 국고채(%,%P)	0.97	0.96	0.96	0.96	0.96	0.01	0.02	0.06	-0.50
	3년만기 회사채(AA-)(%,%P)	2.23	2.22	2.22	2.23	2.24	0.01	-0.01	0.00	0.24
	콜금리(%,%P)	0.51	0.52	0.51	0.49	0.49	-0.01	0.03	-0.05	-0.76
	시가총액(조원)	2,126	2,140	2,129	2,093	2,085	-14.14	45.74	216.51	471.95
	원/달러 환율(원,%)	1,108.90	1,112.70	1,110.40	1,114.30	1,115.60	-0.34	0.46	-1.67	-5.76
	원/100엔 환율(원,%)	1,063.09	1,064.49	1,072.84	1,071.54	1,065.26	-0.13	0.07	-1.88	-1.54
<b>증시주변자금</b>										
	고객예탁금(십억원)	-	60,093	58,448	62,995	63,405	-	-5,043	7,090	35,148
	미수금(십억원)	-	256	272	295	308	-	-71	-8	62
	신용잔고(십억원)	-	17,555	17,476	17,263	17,273	-	297	804	8,231
	순수수익형수익증권(십억원)	-	-	75,932	75,489	75,357	-	-75,287	-72,519	-81,443

Daily Sector Performance



자료: KRX

Domestic Equity Fund Flow



자료: AMAK, Zero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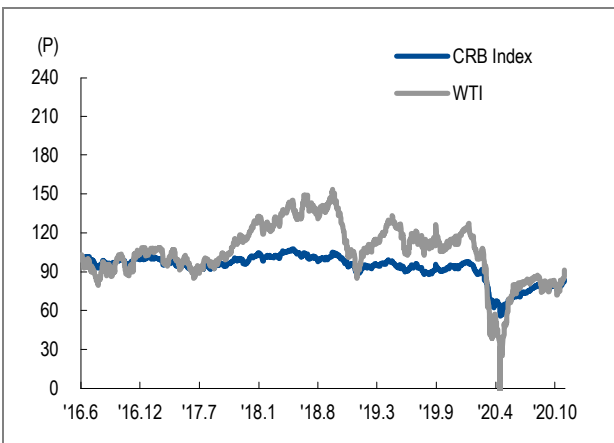
Global Market

		Index					Performance/Spread			
해외주요증시		25-Nov	24-Nov	23-Nov	20-Nov	19-Nov	1Day	1Week	1Month	1Year
미국	NASDAQ(P,%)	12,094	12,037	11,881	11,855	11,905	1.80	2.48	4.73	41.95
	S&P500(P,%)	3,630	3,635	3,578	3,558	3,582	1.46	1.73	4.74	16.70
	Dow Jones(P,%)	29,872	30,046	29,591	29,263	29,483	0.95	1.47	5.42	7.16
유럽	영국(P,%)	6,391	6,432	6,334	6,351	6,334	0.90	0.09	9.06	-12.77
	독일(P,%)	13,290	13,292	13,127	13,137	13,086	1.24	0.67	5.09	0.96
아시아	일본(P,%)	26,297	26,166	25,527	25,527	25,634	3.01	2.21	11.82	13.78
	대만(P,%)	13,739	13,807	13,878	13,716	13,722	-1.00	-0.25	6.51	18.78
	중국(P,%)	10,558	10,613	10,667	10,553	10,555	-1.02	-0.77	4.27	0.49
	인도(P,%)	43,828	44,523	44,077	43,882	43,600	-0.57	-0.80	7.72	8.59
라틴	멕시코(P,%)	42,201	42,736	42,267	41,905	41,869	-0.16	-0.12	9.02	-3.04
	브라질(P,%)	110,133	109,786	107,379	106,043	106,670	2.56	3.78	8.76	1.33
<b>국제금리 및 환율</b>										
금리	미국채 10년(%,%P)	0.88	0.88	0.85	0.82	0.83	0.03	0.01	0.04	-0.89
	스프레드(10년-2년)(%,%P)	0.72	0.72	0.69	0.67	0.67	0.03	0.02	0.03	0.58
환율	엔/달러(엔,%)	104.46	104.28	103.70	103.86	104.12	0.73	0.58	-0.24	-3.87
	달러/유로(달러,%)	1.19	1.19	1.19	1.19	1.18	0.00	0.15	0.30	7.93
<b>국제 원자재 가격</b>										
	CRB Index(P,%)	160	160	157	156	155	1.94	2.99	6.44	-11.08
	WTI (\$/Barrel,%)	46	45	43	42	42	6.13	8.82	14.72	-21.13
	Gold (\$/Troy Ounce,%)	1,809	1,813	1,866	1,871	1,859	-3.04	-3.52	-4.90	23.73
	구리(\$/Metric ton,%)	7,293	7,293	7,178	7,278	7,093	1.61	2.88	6.20	24.56

Global Company Performance	1Week (%,%P)			1Month (%,%P)			PER (배)	
	해외	국내	Gap	해외	국내	Gap	해외	국내
Intel/삼성전자	4.42	2.78	1.64	-2.39	10.63	-13.02	9.86	21.04
Micron Technology/SK하이닉스	4.43	-0.82	5.25	20.02	15.85	4.17	26.21	33.03
Philips/LG전자	-3.07	-1.46	-1.60	1.14	-2.34	3.48	33.73	517.75
NTT Docomo/SK텔레콤	-0.41	-0.87	0.45	-0.33	-3.98	3.65	21.54	18.86
Google/NAVER	1.41	-0.89	2.30	7.95	-2.79	10.74	-	69.52
Toyota/현대차	0.42	0.00	0.42	5.41	7.49	-2.08	9.99	15.87
Nippon Steel/POSCO	7.48	2.73	4.76	18.77	11.36	7.40	-	10.73
Exxon Mobil/SK이노베이션	9.67	0.00	9.67	19.47	0.00	19.47	12.15	-
Singapore Airlines/대한항공	11.71	6.69	5.01	27.93	20.57	7.37	-	-
Mitsubishi Heavy/현대중공업	0.15	7.75	-7.60	9.79	30.97	-21.18	10.03	49.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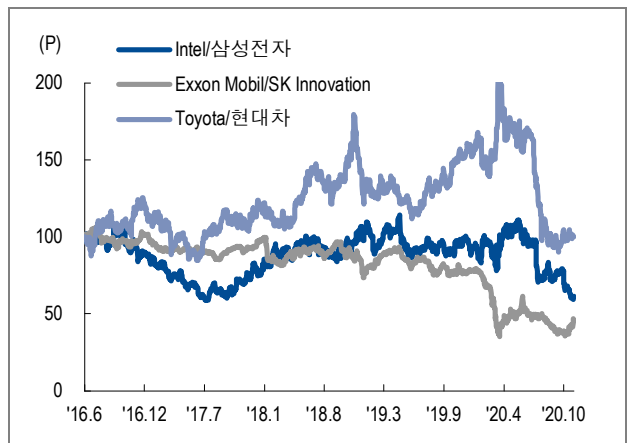
주: 해외=해외주식의 수익률, 국내=국내주식의 수익률, Gap=해외와 국내주식의 수익률의 차

Global Commodities Price Trend



자료: Bloomberg, Dramexchange

Global Company Relative Performance



자료: Bloomberg

<종목 투자등급 (Stock Ratings)>

- 투자등급(Ratings): 목표주가 제시일 현재가 기준으로 향후 12개월간 종목의 목표수익률에 따라 Buy(15%초과), Hold(-15%~15%), Sell(-15%미만)로 구분
- 본 조사항목은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결정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항목을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